

해 외 출 장 보 고 서

**한-남아공 비즈니스포럼
참석 및 발표**

2022. 11.

연구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이호무

요 약

-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관련 정책 동향과 향후 남아공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함.
 - 우리나라 수소경제 정책의 특징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비전 제시로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에 민간이 호응하여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설명함.
 - 남아공과의 협력 가능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향후 수소 교역 파트너로서 남아공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이후 행사에 참석한 남아공 화학 기업인 SASOL측 관계자와 양국의 수소경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남아공이 추진 중인 Catalytic Project들이 양국간 수소경제 협력의 계기로 적절하다는 데에 동의함.
 - SASOL이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뿐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도 협력 파트너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함.
- 남아공 측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정책과 민간 투자 현황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으나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실현을 위한 여건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남아공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의 경우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며 청정수소 생산 여건이 유리함에도 구체적 수출 노력은 드러나지 않고 있음.
 - 현재 남아공은 독점적 전력회사인 Eskom이 누적된 적자로 설비 유지보수마저 부실하여 전국적 계획 순환정전이 매일 실시되고 있고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 편성 논의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에너지 정책으로서 수소경제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으로 보임.

I. 출장개요

□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이호무

□ 출장목적

- 출장목적 : 한-남아공 비즈니스포럼 참석 및 발표 등
 - 우리나라 수소경제 정책 발표 및 현지 관계자 면담 등

□ 출장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기 타
10/24-25		인천 -> 두바이 -> 요하네스버그	
10/26		한-남아공 비즈니스포럼 참석 및 발표	
10/27-28		요하네스버그 -> 두바이 -> 인천	

II.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관련 정책 동향과 향후 남아공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함.
 - 우리나라 수소경제 정책의 특징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비전 제시로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에 민간이 호응하여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설명함.
 - 특히, 여야간 정권교체에도 수소경제 정책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수소경제 추진 의지와 정책적 안정성도 강조함.
 - 남아공과의 협력 가능 프로젝트로 남아공에서 추진 중인 Boegoebai 항만 지역 그린수소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대규모 수소 수입국으로서 향후 수소 교역 파트너로서 남아공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이후 행사에 참석한 남아공 화학 기업인 SASOL측 관계자와 양국의 수소경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남아공이 추진 중인 Catalytic Project로서 Boegoebai 항만 지역, Platinum Valley 등이 양국간 수소경제 협력의 계기로 적절하다는 데에 동의함.
- SASOL 대표단의 10월 초 한국 방문 시 국내 수소경제 관련 기업을 방문한 경과를 듣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기업도 협력 파트너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함.

III. 출장 결과

- 남아공 측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정책과 민간 투자 현황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으나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실현을 위한 여건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남아공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의 경우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음.
- 남아공 북서부는 충분한 일조량으로 그린수소 개발에 유리한 조건이나 남아공 정부 차원에서 청정수소 수출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남아공은 독점적 전력회사인 Eskom이 누적된 적자로 설비 유지보수마저 부실하여 전국적 계획 순환정전이 매일 실시되고 있고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 편성 논의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에너지 정책으로서 수소경제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으로 보임.
- 대표적 민간기업인 SASOL은 수소 생산 및 수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 수요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SASOL은 남아공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석유 금수 조치에 대응하여 석탄에서 합성석유를 생산하는 등 남아공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석탄가공, 석유정제 등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 구조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정수소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0월 초 국내 방문 성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희망함.

IV. 주요 입수자료

○ 없음. 끝.